

# 祝 辭

2019. 8. 27. (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이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지난 17년 7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첫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석했었는데

어느덧 2년이 지나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6개 금융협회장님들을 비롯한

금융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이 곳을 찾아주신 청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박람회가 여러분들께

큰 의미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II. 일자리 부족의 시대

---

일자리를 의미하는 Job, Career는  
빵 덩어리, 마차가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Gob(곱), Cararia(카라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자아실현 수단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일자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세대는  
IT기술 발달, 경제의 성숙화, 성장을 저하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948년부터 2000년까지는  
일자리가 인구보다 1.7배 빨리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일자리의 감소로  
인구가 일자리보다 2.4배 빨리 늘어났다고 합니다.\*

\*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벤처캐피털)가 미국 인구통계국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15년)

IT 발달 등에 따른  
생산·서비스의 자동화, 비대면·무인 거래의 증가는  
생산의 효율화와 소비의 편리함이라는 편익과 함께  
일자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을 피부로 느끼는 청년들의 괴로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청년들 앞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계단\*”이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 이제 그들이 올라서 있는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계단이다... - ‘90년생이 온다’ 中

정책당국자로서는 물론이고  
고도성장기를 거쳐 온 선배이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Ⅲ.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일자리 부족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히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지원과,  
독자적인 혁신산업으로 발전하여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① 혁신·창업 기업으로의 자금공급

먼저, 혁신·창업 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업들 상당수가  
20%의 특별한 소수가 아닌  
80%의 다수, 즉 꼬리부분(long tail)에 기초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 '04년 Wired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이 처음 사용한 개념 :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

금융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롱테일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의 자금공급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혁신·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  
즉 ‘롱테일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②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개척

다음으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개척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에서도  
창구업무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은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개척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를 정형적/비정형적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고,  
과거('82년)에는 공장근로자, 소매업자 등 정형적 업무가  
56%를 차지했으나  
최근('12년)에는 금융 분석가, 프로그래머 등 비정형적 업무가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헨리 시우(Henry Siu) 교수와 니르 자이모비치  
(Nir Jaimovich) 교수의 연구('12년)

금융업은 사람과 종이로 이루어지는  
소위 인지산업(人紙産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산업의 특성상  
비정형적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영역이며,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훌륭한 인재확보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이야말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  
핀테크 등 연관분야의 발전 등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 금융당국의 역할

금융당국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신규허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장지원 펀드 조성, 동산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포혁신 타운 조성(Front1) 등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IV.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의 의의

---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구직자간 효율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 채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든 금융회사는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회사와 구직자  
각자의 니즈(needs)가 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매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 모르텐슨(D. Mortense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매칭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모든 과정’

오늘 박람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매칭’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약 22,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약 15,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박람회가  
청년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금융회사의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니즈가  
만나는 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의 이름이  
“금융에 부는 일자리 바람”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결국엔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듯,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금융권에도 일자리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